

청소년소설의 디아스포라 연구

- 『마음이 사는 집』, 『농담이 사는 집』, 『나는 브라질로 간다』를
중심으로 -

윤현진*

|| 차례 ||

- I. 들머리
- II.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 III.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존재 의미
: '이중 경계인'으로서의 고뇌
- IV. 마무리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출판된 청소년소설 『마음이 사는 집』, 『농담이 사는 집』, 『나는 브라질로 간다』 작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의식과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고뇌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류는 누구나 청소년기를 거쳐 가는 잠재적 디아스포라 의식을 가진 존재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복합적이고 모호하다. 청소년의 불완전한 '나'의 정체성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에 서 있는 디아스포라 의식과 일치된다.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디아스포라의 혼란과 분열을 우리는 청소년기라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비슷하게나마 경험하게 된다. 이에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의식과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고뇌를 살펴보는 것은 인류의 경계인이자, 중간자인 청소년의 모호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존엄을 존중하고자 하는 인류애로 이어지는 확장의 의미를 갖는다.

* 동주대학교 시간강사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은 ‘불완전’의 아름다움이다. 청소년소설에서 ‘불안’은 참된 자기, 본래의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성장의 장치로 작용한다. 청소년의 디아스포라적 경험은 불완전한 존재의 ‘나’를 아름다운 ‘나’로 성장시킨다. 역설적으로 청소년소설에서 디아스포라의 흔들림은 문학적 장치가 되어 아름다움으로 승화된다. 그것은 인종과 민족, 어떤 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이념에 편향되지 않는 경계인이 가질 수 있는 인류애로 연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존재는 ‘이중 경계인’으로서 고뇌를 안고 있다. 민족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을 동시에 고민하게 되는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은 자기 발견의 결과와 타협과 자아각성을 하며, 통과제의 즉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를 겪게 되고 동시에 이민자의 정체성을 통해 타자성에 대한 고뇌를 드러낸다.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존재와 고뇌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 국가, 인종 등의 사회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주제어: 청소년소설, 디아스포라, 다문화주의, 인류애

I. 들머리

청소년의 삶은 디아스포라¹⁾의 운명과 닮아 있다. 아동과 성인의 경계境界에 있는 존재로서, 끊임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되짚어 생각하는 시기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대체로 1318세대 청소년을 소설화자로 삼

1)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산離散을 뜻한다. 디아스포라는 역사적으로 보통 대문자 ‘Diaspora’를 써서 ‘팔레스타인 또는 근대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이후 디아스포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 용어는 “유대인의 경험뿐 아니라 다른 민족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 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 디아스포라 인들은 그들이 새롭게 정착하는 곳에서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소수자이자 주변인이다. 이들은 이중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긍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자신의 분열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정은경, 『디아스포라 문학』, 이룸, 2007, pp.10-16.

고 있는 청소년소설을 ‘경계의 문학’²⁾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디아스포라적 특성과 맞닿아 있음을 증명한다. 하나의 고정된 개념의 의미를 깨고 ‘위치’로서³⁾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면, 보편적 청소년의 삶을 보는 것처럼 위태롭고 이질적이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류는 누구나 청소년기를 거쳐 가는 잠재적 디아스포라 의식을 가진 존재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복합적이고 모호하다. 청소년의 불완전한 ‘나’의 정체성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에서 있는 디아스포라 의식과 일치된다.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디아스포라의 혼란과 분열을 우리는 청소년기라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비슷하게나마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인류가 ‘민족’이란 개념⁴⁾으로 서로를 구분하며 자기 민족의 고유성과 우월성을 주장하지만, 그 다양한 차이만큼이나 공통의 분모를 분명 가지고 있다. 레비스트로스가 주장하는 바⁵⁾에 따르면 ‘인종’은 명확한

2) 박상률, 『청소년문학의 자리』, 나라말, 2011, pp.37-40.

3) 서경식의 경우, 디아스포라는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나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맥락’이자 ‘위치’를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이는 디아스포라 자체가 특별한 실체나 특유한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 주변적이고 소수적인 위치와 그 발화 지점을 점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경식·김용규·이용일·서민정, 『경계에서 만나다: 디아스포라와의 대화』, 현암사, 2013, p.11.

4) 인류학적 정신에서 민족의 정의를 제안하면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이다.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의 성원들도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된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다. Benedict R. O’G.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1983.(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pp.23-25.)

5) 레비스트로스는 ‘인종’이란 보편적 개념이 완전히 외적이고 매우 가시적인 성격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종이란 용어 사용의 부적절함을 드러냈다. Claude Levi-Strauss, *L’anthropologie face aux problèmes du monde moderne*. Éditions du

경계선을 갖고 불변의 성격을 띤 다기 보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바뀌거나 시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분류를 통해 유형을 만들지만 그 정해진 유형이란, 다분히 임의적이고 주관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나오는 다른 ‘낮선 타자’ 인식을 만들었고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를 탄생시켰다.

현대사회는 이기적 개인주의로 서로가 상처받고 있으며, 이웃이 방어의 울타리가 되기보다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때 경계가 문제가 된 것은 차별과 배제, 구분의 선으로서 고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경계는 넘나드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분리와 갈등의 선으로 해석되어 왔던 고정관념을 탈피해, 두 문화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접촉이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상호 의존하며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되어야 한다. 경계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디아스포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1세기 수많은 문화가 혼재하는 공간 속에서 디아스포라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디아스포라 인은 서구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심화된 착취와 다층적 억압, 인종차별주의로 인해 원하지 않는 이동과 이주를 하게 되었지만, 민족국가의 영토를 넘어 어느 때보다도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진 현대사회에서 디아스포라 인의 경험은 다른 민족의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와 함께 문화적 상대성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낮선 공간 속에서 이들은 내적 고통과 외적 갈등을 겪으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창조한다. 그들이 가진 다중의 정체성은 소속관계, 이해관계를 넘어서 세계를 포용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계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Seuil, 2011.(류재화 역,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강의』, 문예출판사, 2018, pp.107-144.)

디아스포라 인은 학연이나 지연, 직업 등으로 얹매이지 않아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얹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며, 여러 문화 사이를 끊임없이 탐색하며 복합적 정체성을 소유한 이주자이기에 독특한 ‘혼종성’⁶⁾을 갖고 있다. 민족 정체성이 민족 국가와 분리되어 본래의 고향과는 멀리 떨어진 디아스포라적인 환경에서 증식하고 혼합적인 문화 형식과 실천으로 등장하거나 혼종적인 정체성 상엔 존재⁷⁾한다는 것이다. 결국 디아스포라 인은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주변을 탐색하는 자이고, 기존 공동체의 관습적인 질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자이다. 그들에게 내재된 약자성, 피차별의식의 정체성은 오히려 강한 것이 되어 차별을 증충적으로 구조화시킨 다수자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의지와 에너지를 획득⁸⁾하게 된다. 디아스포라의 미학적 실천⁹⁾은 바로 고통 속에 모색된 그들의 복합적인 정체성이 오늘날 초국가적transnational 사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개념 형성과 공동체 형성에서 민족의 의미를 새로 구성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000년대 문학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주, 디아스포라, 다문화라는 키워드를 동반하고 민족, 국가, 국민, 한국문학의 범주에 화두를 던졌다.¹⁰⁾ 유학

6) 오늘날 ‘혼종성’이라는 용어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작업을 비롯한 탈식민연구에서 끊임없이 등장한다. 사이드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모든 문화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 어떤 것도 단일하거나 순수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혼종적이고 이질적이다.” Peter Burke, *Cultural Hybridity*. Polity Press, LTD., Cambridge, 2012. (강상우 역, 『문화 혼종성』, 이음, 2012, p.81.)

7) Tim Edensor, *National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Everyday Life*. Bloomsbury, 2002. (박성일 역,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이후, 2008, p.78.)

8) Jacques Derrida, Anne Dufourmantelle DE L'HOSPITALITE. Clamann-Levy, 1997.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p.57.)

9)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p.4.

10) 이미림, 『21세기 한국소설의 다문화와 이방인들』, 푸른사상, 2014, p.28.

인, 해외입양인, 재외한인, 혼혈아들이 등장하면서 단일문화문학과 대조를 이루며 한국문학의 정의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재에 대한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이라도 하듯,¹¹⁾ 비교적 근래에 출판 되고 있는 청소년소설¹²⁾에도 단순한 성장스토리란 한계를 벗어나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다문화를 소재로 다룬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작품을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¹³⁾

그러나 청소년소설에서 청소년화자, 즉 ‘청소년’에 대한 디아스포라 연구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의 주된 주제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의식과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고뇌를 살펴보는 것은 인류의 경계인이자 중간자인 청소년의 호소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본디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존엄을 존중하고자 하는 인류애로 이어지는 확장의 의미를 갖는다.

11) 김중신, 「청소년 문학의 재개념화를 위한 고찰」, 『문학교육학』 제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pp.11-36; 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문학교육」, 『비평문학』, 제39집, 한국비평문학회, 2011, pp.60-83. 등이 있다.

12) 본 논고의 논의 대상인 청소년소설은 비교적 근래에 출판된 2000년대 이후의 청소년 소설임을 밝혀 둔다.

13) 박정애, 「한국 아동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 갈등과 그 해결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이론』 제4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pp.417-452;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 연구 - 《코끼리》, 《완득이》,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 5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pp.373-401. 등이 있다.

II.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청소년소설에서 다문화화를 소재로 한 소설¹⁴⁾은 대부분 한국전쟁 전후의 일본인, 베트남인 혼혈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한국내의 외국인 이주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유학생에 국한¹⁵⁾되어 나타나는 한국문학의 지극히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¹⁶⁾의 특성의 결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청소년’소설이라면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교육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고, 계몽과 교훈의 의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휴머니티는, 능동적 관조, 세계에 영향을 끼치려는 욕구와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 사이 균형을 필요로 한다.¹⁷⁾ 청소년소설의 이야기에는 특정한 목표로

14) 2000년대 이후 청소년소설에서 다문화화를 다룬 작품으로는 김재영의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5; 김려령, 『완득이』, 창비, 2008; 한정기, 『나는 브라질로 간다』, 비룡소, 2008; 김수경, 『망고 공주와 기사 올리버』, 사계절, 2009;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문학과지성사, 2010; 조명숙, 『농담이 사는 집』, 문학과지성사, 2010; 배봉기, 『안녕 라자드』, 문학과지성사, 2011; 최모림, 『마음이 사는 집』, 북멘토, 2013; 변소영, 『이히리베 디히』, 북멘토, 2014. 등이 있다.

15) 21세기적인 다문화는 전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노마드nomad와 디아스포라diaspora의 일반화 현상이 깔려 있다. <...> 노마드와 디아스포라 의식을 그린 한국문학이란 해외동포는 아니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장기 체류자나 유학생 등을 그린 작품을 지칭한다. 임현영 · 이미림 · 김종희 · 황영미, 『디아스포라와 한국문학』, 역락, 2012, pp.15-37.

16)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은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 그것은 인류애, 즉 민족적, 인종적 구별이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뜻할 수도 있고, 문화의 유동성과 일시성을 함축할 수도 있으며 또한 서로 구별되는 실체들로 간주된 문화들 간의 경계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예찬 등을 가리킬 수도 있고, 문화나 도덕적 정서가 아니라 질서와 규준, 즉 세계정부에 대한 예견과 관련된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정현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동인, 2013, p.140.

17) Gyorg Lukács, Die Theorie des Romans. Hermann Luchterhand, 1971.(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p.161.)

지향된 의식적인 과정이자 지도받는 과정이 있고, 이와 같은 활동적 개입이 없었더라면 결코 지향될 수 없는 인간에 내재하는 특성들의 발전 과정과 그것을 해결하고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적 방법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담이 사는 집』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영은의 가정도, 까무잡잡한 피부의 베트남 유학생 수양 역시 다문화 가정의 일원이다. 의료봉사단으로 베트남을 찾았던 한국인 어머니와 베트남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지금은 유학생 신분으로 어머니의 나라에 와 있는 것인데, 생김새가 다른 이모와 함께 살고 있는 영은이에게 또 다른 모습의 수양은 낯설거나 거리낌의 대상이 아니다. 영은에게 수양은 이방인으로서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영은은 오히려 외모가 다른 수양을 놀리며 “갈색보다는 당연히 흰색을 찍어야”¹⁸⁾한다는 이미 내재화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여진의 편견에 맞선다.¹⁹⁾ 청소년 영은의 태도는 나 타자의 동일시, 타자 지향적이며, 디아스포라의 모호성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세상의 차별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시선으로 상처 받은 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수양은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으로 존재론적 과도기의 문턱을 넘어선다. 이런 수양의 곁에는 무심한 듯 배려하는 선생님과 타자 지향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은이 같은 친구가 존재한다. 혼혈아인 수양에게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주변인과 동정이나 냉정의 자세가 아닌 따뜻하고 타자성을 이해하는 시선이 분명 존재한다.

18) 조명숙, 『농담이 사는 집』, 문학과지성사, 2010, p.64.

19) 『농담이 사는 집』의 경우, 주변인물 여진에 의해 주인공이 놀림 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에 다문화 가정의 일원으로서 주인공은 오히려 후진국의 사람, 유색인종을 바라보는 주변인의 타자성을 지적하면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 속에서 백인과 서구의 잣대로 재단되고 표상된 현실을 은근히 비판한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말이 적은 수앙이 베트남에서 왔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나돌았고, 그 때문에 아무도 수앙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지만 나는 수앙이 좋았다. 때때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선생님들은 수앙에게 오카리나 한 곡을 요청하곤 했는데, 약간 주저하면서도 그다지 우물쭈물하지 않는 태도로 수앙은 여러 종류의 애니메이션 OST나 클래식 소품, 최신 발라드 같은 곡들을 능숙하게 연주했다.²⁰⁾

수앙의 나라 베트남. 그곳은 이모의 나라 핀란드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나라와 어떻게 다를까? 따뜻한 계절이 계속되고 비가 많이 오는 곳, 미국과 오래전 혹독한 전쟁을 치른 공산국가면서 경제면에서는 개방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던 시절에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고, 지금도 또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다는 수앙의 나라.²¹⁾

『농담이 사는 집』의 작품처럼 청소년소설에서 화자 혹은 화자의 가족 중 한명을 혼혈인으로 설정한 것은 화자가 또 다른 혼혈아를 긍정적인 대하는 면을 타당화하고, 동시에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맞서게 하기 위해 작가가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사고를 누구보다 이해하는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자신이다. 영은이 수앙에게서 공통점을 찾는 노력은 ‘모방’을 통해서 자신과의 유사성, 즉 다문화 가정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영은은 수앙이 자신과 얼마나 유사한 존재인지 인지하고 있고, 이때 나타난 연결 본능은 보살핌의 범주가 가족, 친족을 넘어서는 ‘타인’에게로 확장된 인류애적 요소로 나타난다.

20) 조명숙, 앞의 책, p.24.

21) 조명숙, 위의 책, p.146.

『마음이 사는 집』에서는 북한-중국-한국의 국경을 넘나든 탈북 청소년이 등장하는데, 어렵게 탈북에 성공하지만 고향인 북한과 가족에 대한 향수로 인해 백두산이 폭발해버리길 바란다.

철민이는 날아드는 말이 돌멩이를 맞는 것보다 더 아팠다. 입 밖으로 밀어냈던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들의 입에서는 돌팔매질 같은 말이 계속해서 쏟아졌다.

“백두산이 터져서 같이 망하자는 거 아냐? 놀부 심보보다 더하네. ……무섭다.”

“자기들이 남쪽으로 넘어오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넘어와 놓고선 웬 똥단지질?”

“와, 정말 독하다.”²²⁾

학교 내에서 탈북 청소년을 향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타자에 대한 거부감과 실망감은 오히려 리얼리티에 가깝다. 그들이 갖는 편견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심리적인 거부’이자, 한국사회에 만연한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민족의식을 표현한다. 그러나 특정 문화에 대한 집착, 편협하고 고착화된 ‘민족’의 좁은 범주와 낯섦에 대한 심리적 경계심은 이방인을 타자로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황과 인물과의 관계가 계몽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해소를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찾음으로써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계도 드러난다. 특히 같은 민족으로부터 받는 편견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레드 콤플렉스와 북한에 대한 잘못된 학습효과가²³⁾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최모림, 『마음이 사는 집』, 북멘토, 2013, p.63.

23) 최남건, 『2000년대 한국 다문화소설 연구 : 이주민 재현 양상과 문학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4, p.82.

이때 등장하는 조력자의 역할²⁴⁾은 탈북 청소년이 겪는 차별과 갈등의 해소와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 국경을 넘기 위해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던 철민에게 표면적인 조력자는 바로 전도사다. 그러나 타국인 한국에 살고 있는 철민은 태어난 곳으로부터, 자라온 곳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력자는 함께 위험한 경계, 고비사막을 건너온 이주민이다.

철민의 머릿속으로 고비사막을 건널 때의 기억이 박혀 들었다. 하얀 눈을 뒤집어쓴 모래언덕이 손에 잡힐 듯 기억 속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자꾸만 모래 속에 빠지는 발을 빼내지 못해 퍽 퍽 쓰러지는 미주를 등에 업고 맨 앞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길을 냈다. 미주 엄마와 철민이는 아버지가 다져 놓은 발자국만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이미 미주를 등에 업은 철민이 아버지가 꼭 다져 놓은 발자국 속으로 걸음을 내딛으면 걸을 빠기가 훨씬 수월했다. 며칠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던 그 사막은 네 사람이 건넜지만 그 위로 찍힌 발자국은 한 사람 것밖에 없었다.²⁵⁾

디아스포라적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기존의 친족관계의 문화적인 토대 위에 있던 가족의 개념을 넘어서 혈연과 전혀 상관없는 ‘유사가족’으로 존재하는 주변인과 주인공은 민족과 종의 경계를 초월한다. 그들은 결국 불완전의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진, 국경과 민족의 경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재, 평범함에서 벗어난 존재, 사이와 사이의 존재, 중간자이다.

청소년소설에서 주요인물이 가진 디아스포라적 동질감은 사회 즉, 각자의 삶에서 공동체라 여겨지는 ‘안’에 속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서로 이해하게 되면서 나타난다. 불완전한 타자로서 취급받는 사회 속에서 ‘자신 속에 타

24) 황성옥, 『탈북 소재 동화·청소년소설 연구 : 인물의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70.

25) 최모림, 앞의 책, pp.165-166.

자성'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회 속에 내던져진 또 다른 타자를 발견하는 시선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디아스포라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려는 연민의 시도는 곧 따뜻한 타자 지향적 시선과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차별과 배제로 얼룩진 사회를 고발한다.

디아스포라적 삶은 고난의 여정이다.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 낯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유학생활동도 마찬가지다. 익숙한 공간이 아닌 낯설고 탈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생활은 의외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 평범한 일상에서 떨어져 나와 고독하며 불안으로 가득 찬 세계, 그곳에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 디아스포라적 삶은 고난-불안-존재를 매 순간 인식하는 연속선상에 서있다. 낯선 공간에서 사유하는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경우, 자신이야 말로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유학서사에서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은 참된 자기, 본래의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성장의 장치로 작용한다. 그들의 디아스포라적 경험은 불완전한 존재의 '나'를 아름다운 '나'로 성장시킨다. 역설적으로 청소년소설에서 디아스포라의 흔들림은 문학적 장치가 되어 아름다움으로 승화된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준혁이 자리로 몰려왔다. 흑인, 백인, 인디오들. 거기 다 혼혈인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한자리에 있다는 건 낯설면서도 색다른 느낌이었다. 한국에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었다.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나라, 가 보지 못한 땅에도 사람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가며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다. 머리로 이해하던 것과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은 달랐다. 준혁이는 자기가 속한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게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는지 머릿속에서 무언가 확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²⁶⁾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떠가는 구름. 나도 구름이 되어 훨훨 한국으로 날아가고 싶었다.

내 꿈은 어디로 갔나?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점, 먼지일 뿐이다!²⁷⁾

지독한 항수병에서 벗어나려고 준혁이는 그렇게 말버둥치고 있었다.²⁸⁾

『나는 브라질로 간다』에서 준혁은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가게 된 유학생이다. 다가오지 않는 미래, 낯선 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불안 심리를 노래로 달래보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민주의와 인종차별, 다수자의 타자들에 대한 배척은 여전하며, 피부색과 경제력, 영어 수준을 기준으로 나눈 타자성에 대한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대우와 불안정한 삶은 감춰지지 않는다. 준혁은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현실의 높은 벽에 좌절하며, 다수자로부터 느껴지는 따가운 경쟁심과 모멸감을 느끼며 자존심마저 훼손당한다. 백인과 흑인이 공존하는 곳에서 준혁은 백인도 흑인도 아닌 어디에서도 어정쩡한 디아스포라적 존재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유학을 오게 되면 타언어, 타민족과 대면하게 되며 그들의 다양성과 타자성을 사유한다. 유학생 생활은 안정적 삶과 거리가 멀었고, 그 초조함과 불안감은 브라질을 ‘가난한 나라’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청소년소설에서 주인공이 최종적으로 체념적 고독에 도달하는 것이 이상理想에 대한 완전한 붕괴나 혹은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6) 한정기, 『나는 브라질로 간다』, 비룡소, 2008, pp.76-77.

27) 한정기, 위의 책, p.93.

28) 한정기, 위의 책, p.179.

그것은 자신의 내면성과 현실 간의 불일치에 대한 ‘통찰’을 의미하며, 이원성에 대한 통찰은 어떤 행위를 통해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삶의 형식들을 개인이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사회와 개인이 가진 내면성을 타협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결국 준혁의 디아스포라 경험은 타국에서 다양한 문화와 유색인종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좁은’ 세상을 반성하는 계기로도 작동한다. 고향, 자아 정체성 상실의 불완전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지구촌, 이웃 집단과의 교류를 통한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바로 디아스포라의 미학이다.

물론 청소년소설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훈적, 계몽적 면모에 대한 강조가 그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고 마는 ‘비현실적’ 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준혁은 처음 유색인종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떠한 내적 갈등이나 경계 없이 스스로 자기의 좁은 생각을 일찍 깨닫고, 어설픈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 금세 그들과 친구가 된다. 이때 서로 다른 피부 색깔은 준혁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디아스포라에서 문화적 차이와 서로 다른 피부색, 의사소통의 부재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타자로 인식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몸짓과 같은 비기표적 기호론에 기반한 경계언어²⁹⁾를 통해 주변인과 연대성을 쉽게 받아들이는 준혁의 모습은 코즈모폴리터니즘적이다. 이중문화, 브라질문화와 한국문화의 경계의 새로운 문화를 지닌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도 아닌, 한국도 아닌 두 나라 사이에 낀 존재, 경계인의 흔적은 브라질인도, 한국인도 되는 가능성의 이름 다음이며 디아스포라의 긍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29) 이미림, 앞의 책, p.114.

청소년소설에서 나타난 공통된 디아스포라의 의식은 ‘불완전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다.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기존 공동체의 관습적인 질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시선은 개방적, 탈경계적 사유로 이어진다. 그것은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경계를 허물며 전진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두려움-탐색-인류애로 이어지는 혼돈의 서사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들의 불완전함이 바로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의식이다. 그것은 인종과 민족, 어떤 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이념에 편향되지 않는 경계인이 가질 수 있는 인류애로 연결된다. 소설 속에 청소년은 본래의 나라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거주국의 문화, 거주국 안에 사는 다른 소수민족의 문화와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성된 경계적 문화의 특징을 지닌다. 인류의 다양성을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소설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디아스포라 의식이다.

Ⅲ.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존재 의미 : ‘이중 경계인’으로서의 고뇌

디아스포라 인들은 이주한 곳에서 언제나 이방인이며 소수자다.³⁰⁾ 특히 민족과 민족의 틈새적 존재³¹⁾이자, 아동에서 성인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 통과 의식 passage에서 ‘악의 발견’³²⁾으로 존재하는 청소년 디아스포라

30)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p.14.

31) 서경식·김용규·이용일·서민정, 앞의 책, p.10.

32) M. Marcus, 『What is an initiation story?』, 『In Critical Approaches to Fiction』, K. Kumer and K. McKean, McGraw - Hill Book Company, 1968.(김병욱, 최상규

인³³⁾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 존재다. 민족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을 동시에 고민하게 되는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은 자기 발견의 결과와 타협과 자아각성을 하며, 통과제의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³⁴⁾를 겪게 됨과 동시에 이민자의 정체성을 통해 타자성에 대한 고뇌³⁵⁾를 드러낸다.

청소년소설에서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은 유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부모가 디아스포라 인이며 그들의 2세인 경우다.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은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한국사회에서 거칠고 무심하며 상처받은 영혼들로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채 언어적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소설에서도 화자에 의해서든, 주변인에 의해서든 잠재된 자국민우월주의³⁶⁾, 서구중심주의, 반인권적 태도는 충분히 감춰지지 못한다. 피부색과 같은 상징물은 우리의 정체성을 잔인하게 상기시킨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징물은 옷 입는 방식이나 색깔처럼 단순히 피상적인 경우가 많다. 옷의 색깔이나 입는 방식을 달리하는 구별법은 각각의 집단에 존재하는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혼혈이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피부

역, 『이니시에이션소설이란 무엇인가?』,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3, pp.460-463.)

33) 본고에서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이라고 명명한 것은 청소년의 불완전한 ‘나’의 정체성과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에 서 있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다.

34) Simine Vierge, Rite, Roman, Initia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3.(이재실 역, 『통과제위와 문학』, 문학동네, 1996, p.18, p.208.)

35) 정은경, 앞의 책, p.45.

36)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R. O’G. Anderson에 의하면 대체로 인종주의와 반(反)셈족주의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안에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 인종차별주의가 국외의 전쟁보다는 국내에서 왕조의 정당성과 민족주의 공동체를 접합시켜 피지배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데 정당화 하려한 요소라는 것이다. Benedict R. O’G. Anderson.(윤형숙 역, 앞의 책, pp.193-194.)

색, 눈동자색, 머리색의 차이로 표출되는데, 이는 혈통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차이 즉 백인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태도에서도 보인다. 이방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고 냉정하다.

“개들은 말야, 알록달록한 옷밖에 입을 줄 말라. 난 그게 싫어. 알록달록에 다 알록달록은 딱 질색이라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산다면서도 수양이 베트남에서 왔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는다고 여진은 덧붙였다.

“촌스러, 촌스러, 아우, 갈색 피부 후진 나라.”³⁷⁾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정체성은 모호하고 불안하다. 혈통이나 피부색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디아스포라 인의 노력은 눈물겹다. 정체성은 어떤 영향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때 그 변화는 청소년에게 극적일 정도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경우 여러 집단에 동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족 집단의 유사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속한 하나나 또 다른 가족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민감하게 의식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 화자가 등장하는 청소년소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한다.

인종, 문화, 피부, 언어, 기후 등이 다른 이국의 땅에서 정착해야하는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은 따돌림을 당해도 법적·신체적·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내면의 상처마저 혼자 극복해야 한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를 불안하

37) 조명숙, 앞의 책, pp.56-57.

게 하는 것은 다가오지 않는 미래다. 부모님과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떠나 낯선 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생활, 불안은 불수록 커지는 풍선처럼 점점 부풀어 올랐다.³⁸⁾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이 가진 심리는 ‘위축’과 ‘불안’이다. 특히 유학서사에서 그들은 편견과 차가운 차별의 시선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겪게 되고, 늘 타자화된 자신을 느끼며 성장한다. 낯선 생김새, 어색한 언어로 인해 항상 타자임을 강요받아야 하는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은 외부의 갈등과 차별 속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정체성을 매순간 인식하게 된다.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에 있어서만은 자기 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다. 더군다나 쿠리치바같이 큰 클럽의 선수들은 외국에서 축구를 배우러 온 아이들을 처음부터 무시하러 드는 경우가 많았다. 대식이와 준혁이가 아무리 브라질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도 그들에겐 이방인일 뿐이었다.³⁹⁾

소설 속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은 여러 국경을 넘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삶과 인물로 탄생하는 생성의 존재가 되기도 한다.

철민이는 맛있는 밥을 싣컷 먹을 때보다도, 편안한 잠자리에 들 때보다도 애국가를 배울 때가 제일 좋았다. 애국가를 부를 때면 남쪽에 왔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옆에서 애국가를 함께 따라 부르던 친구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자기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⁴⁰⁾

38) 한정기, 앞의 책, pp.65-66.

39) 한정기, 위의 책, pp.112-113.

남쪽에서 만나는 세상은 지금까지 철민이가 살았던 세상보다 백배는 더 복잡해 보였다. 갑자기 물을 받고 있던 손에서 힘이 쑥 빠져나갔다. 어깨도 아래로 축 처져 내렸다. 백배는 더 복잡해 보이는 세상을 헤치고 나갈 만한 힘이 철민이에게는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모두가 배를 쫓쫓 굶던 북한에 서의 생활이 그림기까지 했다. 말라 있던 철민이의 눈에 눈물이 펑 돌았다.⁴¹⁾

탈북 청소년 디아스포라인 철민은 정체성 확인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 철민은 하나원에서 애국가를 처음 듣고 배웠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허기를 물릴 칠 만큼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철민에게 중요하다. 애국가를 부를 때 비로소 자신의 소속, 민족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이탈해 버리고 마는 자신의 소속을 붙잡으려 부단히 노력하지만, 탈북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 철민에게 상실된 고향의 기억은 현재의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향하는 기억의 악몽, 지속적인 정신적 트라우마, 부정적, 차별적 태도와 배타적 시선에 시달리는 철민은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북한 생활의 배고픔마저 그리워한다.

“암만 생각해 봐도 할 수 있는게 없지 뭐네. ……김일성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으로 쳐주는 김책공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꽃제비질이지 뭐네?”

그 기억을 떠올리는 철민이의 가슴속으로 겨울이 들어서는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말문을 단게 만들었던 기철이의 말이 질질 끌리는 걸음 밑에서 계속 밟혔다.

철민이도 폭 숙인 고개로 이곳에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한번

40) 최모림, 앞의 책, p.20.

41) 최모림, 위의 책, p.26.

생각해 보았다.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걸려들지 않았다.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 기철이가 갑자기 부러워지기까지 했다.⁴²⁾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속에서 존재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비참하고 고통스럽다. 디아스포라 인은 특정 국가를 벗어났으며, 다른 국민국가에 편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틈⁴³⁾으로 인해 문화적 관행, 언어 등이 조롱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이에 고통 받는다. 열일곱 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야 할 나이에 탈북자인 철민이는 학교 과정에 맞춰 중학교 2학년에 머무른다. 또래보다 어린 친구들과 학교생활은 순탄치 않고, 무엇보다 철민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다. 국경, 민족정체성, 문화적 특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철민이의 모습은 ‘이중경계인’으로서 고뇌를 드러낸다. 남한 청소년들의 생활과 그들이 철민이를 냉정하고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부분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유동의 시대에 소설 속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은 국적을 넘어 자신들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반복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과 인물로 탄생하는 생성의 존재가 된다. 인류의 중간자이면서 민족 정체성⁴⁴⁾마저 흔들리는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타자에게 끊임없이 배척당하고, 자신의 삶에서 조차 배제되기 일쑤지만, 디아스포라 문화와 같은 경계적 문화를 창

42) 최모립, 앞의 책, p.33.

43) 손정수, 『디아스포라에 의한, 디아스포라를 위한, 디아스포라의 글쓰기』, 『문학들』 2006년 가을, p.49.

44) 중요한 점은 다른 정체성들과 마찬가지로 민족 정체성 역시 존재보다는 생성의 과정에서 역사, 언어, 문화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족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Tim Edensor, 박성일 역, 앞의 책, p.69.

출하는 창조자의 역할을 해낸다. 그들은 기존 문화에 깃든 근대, 계몽, 이념 등 은밀히 내재된 잔혹함을 고발한다. 끊임없이 편 가르고 경계 짓고 구획했던 근대의 실상에 돌을 던지는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은 오늘날 탈국경 시대에 화두話頭를 던진다. 청소년 디아스포라 인의 존재와 고뇌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 국가, 인종 등의 사회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인간 본연의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소수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고통 속에 탄생한 그들의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IV. 마무리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관습적인 행동과 태도가 옳은 것이고, 그 외의 관습은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들 간에는 그 어느 것이 더 좋고 옳은 것이며, 또 어떤 것이 더 나쁘다거나 틀린 것이란 평가를 내릴 수 없다. 각 사회의 문화 간의 차이는 상대적이다. 그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는 가치가 있지만, 다른 형식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문화 간의 비교 연구에 많은 관심을 두는 인류학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문화의 상대성 cultural relativity을 인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⁴⁵⁾

인류는 ‘타인’을 다양한 수준과 기준으로 분류하고 배척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될 조직과 구조를 만들어냈고, 배타적 집단을 규정짓는데 엄청난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관행은 ‘나’ 혹은 ‘공동체’의 소집단을 ‘타인’으로

45) 한상복 · 이문웅 · 김광억,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p.94-95.

느끼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류 가치의 뿌리와 본질, 특정한 민족 가치의 불변성을 옹호하는 잘못된 견해들로 비극의 길로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상호의존, 관계성이 강화되면서 “경계들의 쇠퇴와 타자들과의 비자발적 대면”⁴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경계인은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존재하며 더 이상 국민국가, 민족국가라는 단위 속에 틀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그들, 나-타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더불어 타문화, 디아스포라 그 자체를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때 타인의 문화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은 계몽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넘어서, 디아스포라를 다룬 청소년소설이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시사했다.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은 문화적 혼합과 존재론적 안정성의 상실 즉, ‘불완전’의 미학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간적 삶, 뿌리 없음의 부정적 함의를 상실하고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편향적 이념과 양자택일의 대립을 거부하는 디아스포라는 스스로의 특수성에 대한 추구하며 모든 국가, 민족, 공간, 지역적 이익을 초월한다.

디아스포라적 경험은 새로움의 발견이 될 수 있다. 디아스포라 그 자체가 제시하듯, 분산된 그들의 삶은 사유양식,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부터 남 다르다. 그들의 특수성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포용하는 자세에서부터 창조는 시작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인류의 하나의 위치로 존재하고, 그 경계의 기로에 서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은 청소년문학을 경계의 문학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탈피시켜 하나의 독립된 그들의 문학으로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46) 정현철, 앞의 책, p.141.

【참고문헌】

- 김성진,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문학교육』, 『비평문학』, 제39집, 한국비평문학회, 2011, pp.60-83.
- 김중신, 『청소년 문학의 재개념화를 위한 고찰』, 『문학교육학』 제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pp.11-36.
- 박상률, 『청소년문학의 자리』, 나라말, 2012, pp.37-40.
- 박정애, 『한국 아동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 갈등과 그 해결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이론』 제4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pp.417-452.
- 서경식 · 김용규 · 이용일 · 서민정, 『경계에서 만나다: 디아스포라와의 대화』, 현암사, 2013, pp.10-11.
- 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 - 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p.14.
- 손정수, 『디아스포라에 의한, 디아스포라를 위한, 디아스포라의 글쓰기』, 『문학들』 2006년 가을, p.49.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p.4.
-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 《코끼리》, 《완득이》, 《이슬람 정육점》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pp.373-401.
- 이미림, 『21세기 한국소설의 다문화와 이방인들』, 푸른사상, 2014, p.28, p.114.
- 임현영 · 이미림 · 김종희 · 황영미, 『디아스포라와 한국문학』, 역락, 2012, pp.15-37.
- 정은경, 『디아스포라 문학』, 이룸, 2007, pp.10-16, p.45.
- 정현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동인, 2013, pp.140-141.
- 조명숙, 『농답이 사는 집』, 문학과지성사, 2010, pp.7-247.
- 최남건, 『2000년대 한국 다문화소설 연구 : 이주민 재현 양상과 문학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4, p.82.
- 최모림, 『마음이 사는 집』, 북멘토, 2013, pp.7-189.
- 한상복 · 이문웅 · 김광억,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p.94-95.
- 한정기, 『나는 브라질로 간다』, 비룡소, 2008, pp.11-239.
- 황성욱, 『탈북 소재 동화 · 청소년소설 연구 : 인물의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70.
- Benedict R. O'G.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1983.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 출판, 2002, pp.23-25, pp.193-194.)
- Claude Levi-Strauss, L'anthropologie face aux problèmes du monde moderne. Editions du Seuil, 2011.(류재화 역,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강의』, 문예출판사, 2018, pp.107-144.)
- Gyorg Lukács, Die Theorie des Romans. Hermann Luchterhand, 1971.(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p.161.)
- Jacques Derrida, Anne Dufourmantelle DE L'HOSPITALITE. Clamann-Levy, 1997.(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p.57.)
- M. Marcus, 「What is an initiation story?」, 『In Critical Approaches to Fiction』, K. Kumer and K. Mckean, McGraw - Hill Book Company, 1968.(김병욱, 최상규 역, 「이니시에이션소설이란 무엇인가?」,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3, pp.460-463.)
- Peter Burke, Cultural Hybridity. Polity Press, LTD., Cambridge, 2012.(강상우 역, 『문화 혼종성』, 이음, 2012, p.81.)
- Simine Vienne, Rite, Roman, Initia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3. (이재실 역, 『통과제 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p.18, p.208.)
- Tim Edensor, National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Everyday Life. Bloomsbury, 2002.(박성일 역,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이후, 2008, p.78.)

Abstract

Diaspora Studies of Juvenile Novels

- Focusing on works 『A house where hearts live』,
『the house where jokes live』, 『I go to Brazil』 -

Yun, Hyeon-ji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itual of Diaspora and the anguish of juvenile diaspora in the following novels published since the 2000s, 『A house where hearts live』, 『the house where jokes live』, 『I go to Brazil』. Anthropologically, mankind has a potential diasporan consciousness that goes through adolescence. The identity of the diaspora is complex and ambiguous. The incomplete 'I' identity of the juvenile is consistent with the diasporic ritual of standing at the border without belonging anywhere. In the growth within adolescence, we experience similar confusion and disruption of the diaspora, which is constantly repeating the question of who is thrown into the world, WhoamI? To understand the diasporic ritual and the agonies of the adolescent diasporas in juvenile novels is to understand the ambiguity of juvenile, the boundaries of mankind, and the meaning of expansion that leads to humanity in order to respect the dignity of human beings with colorful colors.

The diasporic ritual in juvenile novels is the beauty of 'imperfection'. In an adolescent novel, 'anxiety' acts as a device of growth that makes it possible to find one's true and original self. The diaspora experience of adolescence grows the 'I' of the imperfect existence into a beautiful 'I'. Paradoxically, the youthfulness of diaspora in the juvenile novels becomes a literary device and sublimates to beauty. It is linked to the humanity of race and race, the boundaries that do not belong anywhere, and which are not biased toward ideology.

In reality, however, the existence of the juvenile diaspora is suffering as a 'double border'. The juvenile diaspora, who is troubled with both national

identity and self-identity, is forced to experience self-discovery, compromise, and self-awakening. and pass the proposal to be born again as another person, Reveal the agony of otherness through the identity of the other. Under standing the existence and agony of the juvenile of diaspora can be extended beyond simply understanding one individual to include larger social issues such as culture, the nation, and race.

Key Word : Juvenile novel, diaspora, multiculturalism, Humanity

윤현진

소속 : 동주대학교 시간강사

전자우편 : dlgusgus0718@naver.com

이 논문은 2018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8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6월 7일 게재 확정됨.
--